

1. 요한일서는 편지글이다. 신약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지글이다. 편지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편지와 얽힌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이야기 해보자.(연애편지도 좋고)

2. 요한일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글인가?(1:2-5)

발신자(우리):

수신자(너희):

3. 이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1:3, 5:13)

1) (우리)와 (너희)가 서로 (사귄)이 있게 하기 위해

2)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4. 사귄에는 첫째, 사귄의 대상(양쪽)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 양쪽을 이어주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즉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something in common, something to share) 관계는 “맺어야” 이루어진다.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관심사가 있어야 사귄이 가능하다. 이 사귄을 위한 좋은 매개체(관심사)가 있으면 이야기 해 보자.

5.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교제만 중요한가? 세속적이지는 않지만 육적인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요한의 사귄의 방법(접촉의 방법)은 편지였다. 남이 내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남에게 하기 귀찮은 것이 바로 편지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편지를 받고, 또 보내는 편인가? 오늘날 편지를 대신해서 접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

7. 사귄이 있을 때 서로 닮아간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너'와 '내'가 만나 사귄을 통해 '우리'가 된다. '우리의식'(동질감,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사귄이 이어질 때 더욱 굳은 하나가 이루어진다. 테니스를 잘 치려면, 공과 라켓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과 라켓이 자주 만나야 한다.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 만남 등 당신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

8. 하나됨을 위해 우리 지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접촉의 방법, 횟수와 교제의 수단(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9. 오늘 본문에 요한이 제시하는 이 사귀의 방법, 연결고리(something in common, something to share)가 무엇인가?(1,3)

10.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1,3)

11. 사귀(교제)의 결과가 무엇인가?

1) 1-2절: 요한과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간의 교제의 공통분모는 자신이 경험한 말씀이었다. 그는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말씀(예수님)을 전했다. 그 결과 이 말씀(예수님)을 전해 받은 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이 생명은 1) 중생, 구원의 생명이고 2) 구원 받은 성도의 생명력 있는 삶을 말한다.(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2) 3절: 그리스도인의 '너'와 '나'의 사귀는 단순히 '우리'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까지 발전한다. 너와 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두 그림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보자.

- 단 3:24-25

- 엡 2:14-22/요일3:23-24

3) 4절: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은 내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이런 교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기쁨**)이다. 삶과 말씀을 나눔으로써 '기쁨'을 경험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자.

12. (기쁨을) '충만케 한다'(4절)는 말은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다. 공유되지 않은 기쁨은 부족한 기쁨, 미완성 기쁨이다. 말씀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오는 기쁨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 완성된 기쁨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요 15:11)

13.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할 뿐 아니라 바르게 만나야 한다. 요한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만남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른 만남을 통해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우리 지회 안에 어떻게 이런 만남, 즉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서로 사귀는 무리이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이고, 둘째는 사귀(성도)들과의 사귀이다. 하나님과의 사귀를 통해 경험한 은혜(말씀)는 반드시 다른 성도들과 나누어야 한다.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 이 중 어느 것도 덜 중요하지 않다. 삶은 오르라고 있지만, 내 옆에 성도는 교제하라고 있다. 말씀의 공유(나눔)은 말미암는 교제, 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기쁨의 완성, 이것이 교회다.

생각을 여는 질문: 구원 받은 당신은 지금 의인인가? 죄인인가? 왜?

1. 본문 뜯어지게 보기: 같은 단어 군을 찾아보자.

* 빛:

* 어두움:

2.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체험한 태초부터 계시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첫 번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5)

3.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1) 시 36:9/ 시 27:1/ 사 49:6/ 요 8:12 (생명)

2) 요 3:19-21/ 요 8:12/ 엡 5:8-12 (착함,의로움,진실함)

4. 당시 이단자들의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 6:

- 8:

- 10:

5. 이에 대해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6,8)

우리는 과연 죄가 없는 자인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자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거짓말해도 소용없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죄를 짓는 것은 어차피 지옥갈 육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가 없다'는 억지 논리를 편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논리를 갖다 붙여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다. 죄가 없다고 profess(공언)함으로써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confess(자백)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6.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너희'로 '우리'로 사귀어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교제(동행, 하나됨)하게 함이었다.(3)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특징은 무엇인가?(6-7) 왜?

7.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삶(동행하는 삶)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6,9

- 1) 죄를 멀리하는 삶(빛 가운데 사는 삶)
- 2) 죄용서의 기쁨

8. 하나님과의 사귄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8-9)

9. 어떤 죄,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자주 범하는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왜?(9, 5)

구원 전과 구원 후의 죄 용서의 방법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두움(죄)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두지 못하시고 죄 값을 지불함으로(피 흘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여전히 범죄 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신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를 통해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왜 죄 용서를 받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결코 어길 수 없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이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이루시는 빛이신 하나님, 거짓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용서 받았다는 우리의 감정(feeling) 때문이 아니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fact) 때문이다.

10. 구원 받은 후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9)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하는가?

구원 받은 후 죄 회개를 왜 해야 하는가?

구원 후의 죄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죄를 회개해야하는 이유는 용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약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구원 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할 이유는 지옥 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해서이다. 이것이 다윗이 괴로워했던 이유이다.(시 51:9-12)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다.

1.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1)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가?
2. 성경은 죄를 멀리할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가?(마5:29-30/히12:4) 어떻게 하면 죄를 안(덜)지을 수 있을까?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있으면 좀...
3. 요한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도 괜찮다. 왜 그런가?(1)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1-2)
 - 1) 대언자
 - 2) 의로우신 분
 - 3) 화목 제물(속죄제물)

보혜사(예수님)와 또 다른 보혜사(성령님)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다. 한 분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이 땅에 우리 안에 계신다. 한 보혜사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에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하나님께 속한 죄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죄의 유무, 죄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가 계신가 아닌가의 차이이다. 죄 문제에 있어서는 땅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나는 죄를 안(덜) 지었다 (<) 나는 보혜사를 가졌다

4. 하나님을 아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3-4)
5.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5) 4:18절도 참고하자. '온전케 되다'(5)는 말이 어디에 또 나왔는가?(1:4)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완성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실천, 순종, 나눔으로써 완성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 밖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완전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분에 대해서 알지만(knowing about God)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분을 경험한다.(know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6. 빛 가운데 거하는 삶=하나님과 (교제)하는 삶(1:6)=예수님을 (아는)것(2:4)=(계명)을 지키는 삶(2:4)=(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2:6). 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명령)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결과인가?

형제사랑, 의무인가? 결과인가?

형제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동시에 결과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없이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저절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실천할 책임이 있다.

7.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 무엇인가(9-11)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인가 옛 계명인가?(7) 왜? 그런데 요한은 왜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금방 고쳐 말하는가?(8) 참 빛이 무엇인가?

8. 성도가 구원 받은 후 범한 죄를 회개해야할 이유는 죄 용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약해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다윗이 괴로워했던 이유였다.(시 51: 9-12) 요한은 이것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했다. 이 개인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 외에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삶의 이유를 요한은 무엇으로 들고 있는가?(9)

9. 9-1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 속에 (거리낌)이 있고 그의 눈이 멀어져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그 안에 (거리낌)이 없고 그 눈이 밝아 (갈 곳)을 바로 안다. 요12:35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리낌(scandal)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큰 짐을 등에 지고 달리기 경주에 나선 것과 같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 안에 거리낌(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고 눈이 어두운 상태로 비유했다. 그는 결국 넘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요한복음 9:39-41을 읽어보자. 소경이라도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지만 정상인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소경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이다.

10.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마5:44)

- 1) 원수를 (사랑)하라 2)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마 5:44절의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원수사랑, 핍박자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둘 중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 우리 주변에는 다음 4부류의 사람이 있다. 1)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 2) 내가 애착(동정)이 가는 사람 3)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원수 같지는 않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힘들고 귀찮아 질 것 같은 사람) 4) 나를 싫어하고 나도 싫은 사람(? 수). 예수님의 명령, 우리의 목표는 물론 4번까지이다. 잠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의 4부류로 나누어보고, 지금 나는 몇 번에서 씨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3.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원수사랑 이전에 형제사랑 부터 연습해야겠다. 위의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만남, 전화, 이메일, 기도 등) 또한 3), 4)번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적용할 수 있을까?

1. 요한은 독자를 세 무리로 나누어 힘을 북돋우고 있다. 그 세 무리는 누구이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며(나이?),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12-14)

- 1) 자녀들:
- 2) 아버지들:
- 3) 청년들:

2. 위의 권면에는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이 있는가?

- 1) 현재형과 완료형 동사
- 2) 순서가 자녀-아버지-청년 순
- 3) 자녀에 대한 권면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다

3. 자녀들, 아버지들, 그리고 청년들은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가?

- 1) 자녀-
- 2) 아버지-
- 3) 청년-

4. 자녀나 아버지에 비해 청년은 강한 것이 특징이다. 강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는 어떤 자가 강한자인가? 다음 세 구절로 답을 찾아보자. 14절/요일5:4-5/엡6:18

자녀의 단계는 예수님을 갓 믿고 중생한 초보의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아버지의 단계는 믿음의 가장 깊고 완숙한 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청년의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항상 (영적)싸움이 있다. 싸움은 이겨야 한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벧후2:19) 강해야 이긴다. 이 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성경의 권)으로만 가능하다.

5. 다음 빈 칸을 채워보자(15-17절)

	출 처	결 과
세상을 사랑함	(세)로부터 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함

이상한 이단, 영지주의

이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 이단자들에 대항해 쓴 이 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과 같은 주장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들은 썩은 세상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였다.(탈도덕, 방종) 그러다 보니 세상 천악을 자꾸 행하

게 되고, 떠나서 천에 맞을 들이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썩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반대 경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세상이 나쁘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6.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요3:16)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1) 15-16/ 하나님 사랑과 세상사랑은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2) 17, 고전7:31/ 없어질 것이므로.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우리는 영원한 것, 오래 가는 것을 사랑해야 한다.(시1:6)

아버지의 사랑(15절)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된다. 첫 경우라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요, 둘째 경우라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7.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15) 세상 사랑의 3가지 루트가 무엇인가?(16)

8. 육신의 정욕(the lust of flesh), 안목의 정욕(the lust of the eyes), 이생의 자랑(pride of life)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자랑: empty라는 의미가 있다. 야고보는 이것을 두고 허탄한 자랑이라 함(약 4:16)

9.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부터일까? (100불짜리 핸드백과 1000불짜리 핸드백, 공짜 핸드폰과 400불짜리 핸드폰)

10. 위의 이 세 가지를 하와가 지은 인류 첫 범죄(창3:6)와 비교해보자.

먹음직도 하고=(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이 생의 자랑)

11.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15,16, 마12:43-45)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천의 법, 이 두 법이 공존하면서 늘 새 없이 싸운다.(롬7:23)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천의 법이 이긴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법에 더 많은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영적 싸움은 곧 우리 속에 어느 영이 더 많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은 곧 영역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의 삶에 나는 이 영역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땅의 접촉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혹은 주위에 이땅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1. 당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19, 26)

2.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요한은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18)

3.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18)

4. 당시 영지주의 이론을 따라 나간 자들은 지식층이었다. 따라서 처음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를 따라 교회에 남은 자들은 자연히 위축되고 혹시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에 요한은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는가?(19-20, 27)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11:25)

5. 다음 성경구절들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을 살펴보자.(마24:3-14/딤후3:1-5)

- 자연현상:
- 종교:
- 사회현상:

6. 교회를 떠난 자들은 어떤 사상을 좇고 있었는가?(22-23)

가현설(假現說)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 가장 강력한 이론이 바로 이 가현설이다.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라는 이론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육체를 입고 오신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악한 의도에서였다.

7. 나간 자들,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예수≠하나님], 즉 [예수≠그리스도]이다. 이에 대해 요한은 무엇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 주장(23)

- 명령(24,27)

- 약속(25)

8.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그리스도)"이다.

요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행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기독교론(천자론-예수님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하나님/여호와/알라) 그러나 신론에 있어서 이들 세 종파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예수님에 관한 교리(기독교론)이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메시아)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마호메트보다 못한 자로 인정한다. 결국 이들 두 종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을 거부한다.

9.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신으로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는 가르침.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일까?

사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천대의 관심사는 인류 구원이었다. 세상의 역사는 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 존재했고 또 진행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재림, 즉 그리스도(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이것이 세계 역사의 처음과 끝이다. 그 그리스도(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은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 시켰고(바람의 사나 탈취, 바람의 이스라엘 멸살 정책,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등),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어린 유아 시절에 죽이려 했고(헤롯의 유아 학살령), 성년이 되셨을 때는 죽지 못하도록 했고(세 번의 시험, 베드로와 군중을 통해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도록 함),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하려 했고, 그 후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메시아) 되심을 반대하는 갖가지 거짓 이론들을 퍼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모든 방해 공작이 실패로 끝난 사탄의 마지막 관심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 이 전략에 가장 강력하게 사용된 사상이 2천 년 전에는 "영지주의"요, 지금은 "과학주의"이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이 의심 없이 떨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20,27, 마16:17)

생각을 여는 질문

최근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부족한 재림신앙-초기 한국 교회의 재림신앙

한국교회는 초창기 현실도피적인 재림신앙을 가졌다. 복음이 전파되던 때 이미 국운이 기울고 있었고 부흥은 일제 초기에 크게 일어났으므로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천천년설이 지배적이었다 (천년왕국 전 재림설).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선다는 신학으로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긴장감을 주는 대신 현실의 삶을 등한히 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이때를 대변하는 노래로 “주님과 대가”라는 게 있다.(손양원 목사님 작사)

잘못된 재림신앙-현대 한국 교회의 재림 신앙

한 때 예수님의 재림날을 예언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무리가 있었다. 이장림의 다미 선교회, 하방익 중심의 다베라 선교회, 그 밖의 수많은 무리가 있어서 199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떠돌고 다녔다. 이런 극단적 종말론은 언제나 교회가 현세주의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재림과 종말을 잊고 현실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은 70년대 들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살만해 지자, 80년대 들어서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좋은 변화도 있었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육체로 재림하실 그 날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당시 이단자들의 부활관

당시 이단자들은 부활에 대해 부활이 지나갔다 가르쳤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곧 중생이 부활이라고 가르쳤다. 종계 이름하여 “영적 부활”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셨고, 우리도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가르친다.(딤후 2:8-19, 고전15)

당시 이단자들의 재림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얼른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것이며, 죽음과 더불어 몸을 벗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몸이 부활한다는 건 이미 얻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몸의 부활을 믿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부인하였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다시 몸으로 재림하실 것도 모두 부인하였다.

2. 부활과 재림을 이렇게 잘못 가르칠 때 삶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

- 요일3:3 깨끗한 삶을 살지 않는다
- 딤후2:16-19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간다. 믿음을 무너뜨린다. 불의를 행하게 만든다.
- 고전15:32-33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 쾌락과 방종.

3. 성경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 요5:28-29
- 고전15:35~

4.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 계1:7/행1:9-11

5.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가?(3:2, 고후3:18, 빌 3:21) 또한 이 소망은 현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가?(3:3, 고후7:1)

6.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2:28)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요15:3-4)

7.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3:1-2, 요15:19)

8.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혹 동조하거나 흔들리지는 않는가? 반대로 경멸하며 가볍게 무시하지는 않는가?

9. 오늘날 경계해야 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두 가지가 있다. 1)느슨한 교리(기독론)와 2)느슨한 종말론이 바로 그것이다. 느슨한 교리(이단교리)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느슨한 종말론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에게 "보다 편리한 신앙생활 보장"이라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 마지막 때(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2천 년 전에 시작된 종말은 아직까지 계속 중이다. 성경의 종말론은 괜한 험박인가? 2천 년 동안 진행 중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 벧후3:8-12

- 마24:32-44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기

지구의 갱작스러운 멸망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한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시한부 종말론(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무종말, 무재림론이다. 마치 종말(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활한다면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보다 우리에게 더 독이 된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우리는 이 둘 중의 하나의 종말을 곧 맞이할 자들이다. 이 사실에 대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우직하게 배를 짓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잠시 '망각하게' 만들만큼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고 바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1.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들어 설명한 요한은 이제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릇된 삶과 대비하여 뚜렷하게 가르쳐 준다. 요한은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왔다. 예컨대, 빛과 어둠(1:5-6),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2:3-4),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2:9-10),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3:1-2). 요한 특유의 이분법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과 무엇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가?(7-8)

2. 요한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4)

* 불법(*anomia*)은 Illegal이 아니라 Lawlessness(무법)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한 번 털기만 하면 이제는 은혜시대이므로 법이 없다고 하였다. 성경, 특히 롬8:2을 오해하였다. 생명의 성경의 법이 우리를 죄악 사탄의 법에서 해방시켰지 법이 없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율법대신 다른 법, 즉 성경의 법이 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법은 사람을 미워할 해도 살인으로 규정한다.

3.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5, 8, 창3:15)

4.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히2:14)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6, 9)

6. 하나님의 씨란 무엇일까?(벧전1:23)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요 15:7-8)

7.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9)는 말씀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1:10)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죄심인가? 의심인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맞다. 우리는

법치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낳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도 맞다.(9)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한 후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낳 자는 죄를 범할 때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각오 하는 자이지, 한 번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다.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낳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 이다.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NIV) 하나님께서 낳 자는 죄를 안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죄의식', 즉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 자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인 셈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만큼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다.

8. 요한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두 소속으로 나누고 있다. 무엇 무엇인가?(10)

9. 바울은 구원 받기 전의 우리의 신분, 즉 마귀의 자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엡 2:2-3)

10.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10)

11.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됨의 표로 의를 행하는 것을 들었다. 요한이 제시하는 의를 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성경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나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나누기보다 경계 선을 두루 몽실 없애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1) 남녀 구분이 없다-동성연애
- 2)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다-정치적 옳음(political correctness)
- 3) 좋고 나쁨의 구분도 없다-'너 좋고 나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2.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옳은 일, 곧 의라 부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정의는 뜨거운 사랑의 정의이다. 사랑이 아닌 정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3.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어두움을 쫓아 내는 것은 빛을 비추는 길 뿐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다.(시109:9)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는가?

1.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는가?(14) 요한은 또 어떤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가?(요5:24)

2. 다음 두 구절을 읽고 서로 비교해보자.

1) 롬3:28

2) 약2:21,24,26

3. 다음 구절을 읽고 위의 2번의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자.

* 롬3:31, 12:1/약2:22

4. 당신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강하게 확신하는가? 14절은 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상태(구원-현재적 천국)를 아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 경험할 수 있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은 마치 악한 가인이 선한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과 같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안에 거하여 생명을 경험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안에 거하여 사망을 맛보고 있는 자이다. 가인이 따로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가인이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도 손을 막으면 그가 곧 가인이다. 그 속에는 영생이 이미 없다. 영생이 무엇인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은 시작된 것이다. 육체가 죽음으로써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거하고 있는 지금 이미 영생은 시작된 것이고 육체적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뿐이요 잠에서 깨고 나면 자기 전의 그 생명(영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물론 잠자기 전의 생명(영생)이 완전하지 않고 잠에서 깨 후의 생명이 완전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다볼 수 없다. 그가 구원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중생(영생)의 가장 확실한 현재적 증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생명과 생명력

14절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제사랑을 실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구원 받았다는 것,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우리가 믿을 때에(과거) 이미 우리는 생명(구원)을 가졌다. 그러나 생명(구원)을 소유했다고 해도 모두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게 생명(영생)이 있다는 증거요, 구원 얻은 증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다. 내가 말씀을 순종(그 중에 최고의 계명은 바로 형제 사랑)하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 주님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나 하지 않으나 내 안에 계신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 거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는 삶과 느끼지 못하는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내 속에 예수님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거의 내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구원이야 받게지만) 얼마나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삶인가?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불쌍한 삶이다.(4:18)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내 속에 내주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삶, 이것이야말로 신나고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무엇으로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사랑 실천을 통해서이다. 남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가? 믿음으로 얻은 생명, 형제사랑으로 생명력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10:10)

6.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15절)

7.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16. 요3:16) “By *this* we know love”

8.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 1) 먼저 사랑(4:19) 2) 자격 없는 자를 사랑(롬5:8)
- 3) 끝까지 사랑(요13:1) 4) 생명을 주신 사랑(요15:13)

9.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내 사랑을 돌려 줘.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할 차례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16-18, 4:11)

10.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 가지 결과가 있는가?(19; 4:17)

- 1)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구원, 영생의 확신
- 2)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균세계) 한다. 공훈은 심판 이기고 자랑한다.(약2:13)

11.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이 한 가지 더 있다. 무엇인가?(22)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막11:24

요15:7

함께 생각합시다

1. 어디까지가 형제인가? 거지나 homeless people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가?

2.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마치 실천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남용, 오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사랑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음을 묵상합시다.

3.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똑같은 수준의 사랑, 곧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소박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incarnation) 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다.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8, 창3:15)

2.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 요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 요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 고후11: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3.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어떻게 그것을 멸하셨는가?(히2:14)

4. 하나님의 아들(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가?(9)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God's seed)는 곧 하나님의 본성(God's nature)을 말한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안에 그 나무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속고 유혹에 넘어지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5. 사람들을 속여서 참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게 하여 인간들을 지옥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일이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그 일을 하기도 한다. 죄인들을 지옥가게 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사탄의 일이 무엇일까?(눅4:18-19)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의 일

사탄의 첫째 일은 죄인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다.(영적 죽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멸하셨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죽은 후의 일만 겨냥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다. 불신자는 물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이고 유혹하여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고 포로 되고 눌린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죄, 질병,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의심, 불안, 근심, 싸움, 갈등, 불일치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 이것이 또 다른 마귀의 일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 마귀의 일은 결국 1) 죽어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하는 것과 2)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눌리고 자유가 없이 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구원),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요10:10)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이 두 번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6. 그러나 마귀의 일이 아직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다. 이 멸망 작업이 언제 끝나며, 맨 마지막에 멸망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고전15:24-26, 28)

오는 세계의 현재성(이미 임한 오는 세계-already but not yet)

예수님은 오는 세계(죽음 후의 세계-천국, 지옥)가 이미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눅11: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다스림, 통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옥은 ()의 통치와 지배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탄의 나라도 이미 이 땅에 임해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영적전쟁

하나님의 자녀이면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받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막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되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탄과 직접 싸워야한다. 이를 **[영적전쟁]**이라 한다. 이 영적전쟁에 있어서의 대원칙과 권위 사용의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 **대원칙**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4:4)

📖 **권위 사용의 5가지 방법**

- 1)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칼과 같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심. 말씀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라(책갈피, 밑줄, 주제별, 요즘은 인터넷 검색)
- 2) **예수님의 이름**: 막16:17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 3) **예수님의 보혈**: 계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하는 말을 인하여 저(마귀)를 이기었으니" "예수의 피가 너를 이긴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진 사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장소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이다.(보혈 찬송)
- 4) **성령의 능력**: 마12:28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함.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이 강해짐.
- 5) **진리 선포**: 계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 하는 말을 인하여 저(마귀)를 이기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 시인(롬10:10-마음으로 믿어 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룸)

1. 본문에는 어떤 두 영이 나오며, 그 각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낼 수 있는가?(1-3)

- 1) (하나님)의 영:
- 2) (적그리스도)의 영:

2. 요한 일서를 받는 독자들은 어디에 속하였는가?(4) 왜?

3.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5)

4.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가려내는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6)

5. 5-6절 말씀을 통해 당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가?

6.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4)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구분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눈으로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교리를 믿느냐하는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력 꽤나 있다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떼 지어 교회를 뛰쳐나간 뒤 쓸쓸히 남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속한 이보다 크심이라"

7.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는 자들(6)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7)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8.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알게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7)

- 1) 하나님께로 난 자(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 2) 하나님을 알게 됨(경험)

9.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 곧 사랑을 실천해야한다.(또는 실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10)

10.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 1) 먼저 하신 사랑-죄인들을 위해
- 2)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자기의 아들을
- 3) 생명을 버리신 사랑-내어 주심.

11.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12) 두 가지.

- 1)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 2)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해도 반응 없고 돌아오지 않는 일방통행의 사랑에 지쳐있는가?(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하지 않니?) 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듯이. 이 [서로사랑]이 참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다-고전13:13)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안에**도 거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야 할 자들이다.(엡2:22) 서로사랑.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랑은 여기 있스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God is Love)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Love is of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We are of God)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It is right) 그런데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먼저 보여 주셨다.(God shows what love is, and how to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에 나의 필요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살리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살면 남은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실천 하지 못한다. 내가 안 죽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 주셨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12.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또 그들의 말을 잘 듣는다.(5)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우리(사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 1) 왜 그런가?(6)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 내가 이해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 2)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는가?(10)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 3) 언제 나를 택하셨는가?(엡1:4) 왜 나를 택하셨는가?(엡2:4)
- 4)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11)

생각을 여는 질문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최근에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1.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됨, 이것이 신앙생활(not 종교생활)의 진수, 본질이다.(13, 요15:5, 17:11,21-23) 어떤 자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자인가?(15)

2.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 안에 거하시고 ()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15) 그러나 하나님은 ‘내’안에(in me) 계시기만 원하지 않고 ‘우리’안에도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안에 (among us) 거하시게 할 수 있는가?(12)

3. 16절의 ‘하나님은 사랑이라’의 바른 영어 번역은 어느 것인가?

- 1) God is a lover.
- 2) God is the one who loves.
- 3) God is love.

4. 온전한 사랑의 결과(유익)가 무엇인가?(17하, 약2:13)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완전)해 진다고 했는가?(12, 17) ‘이로써’란 어떻게 함으로써인가?

5. 이 온전한 사랑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17)

6.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의 결과(유익)가 또 무엇인가?(18)

7. 사랑이 머문 자리에는 ()이 없다. 그 사랑이 크고 온전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 예를 예수님과 스테반에게서 찾아보자.

8.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I love God)에서 ‘하나님’ 대신 넣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16절 참고) 사랑

9. ‘이로써’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다고 하였다.(17)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고 완전해 진다는 의미이다. 내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인가?(20)

10.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있다.(20, 5:1)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하나님’ 대신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11. 15-16절을 다시 읽어보자.

믿음과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누구신지(하나님의 아들 되심)를 바로 아는 자(믿는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신다.(15)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16)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낯 자들이다.(5:1)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것이다. 이해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다. 믿음이 하나님(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었다면, 사랑은 하나님(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시게 하지말, 사랑은 하나님을()안에 거하시게 한다.

12.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19)는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의무인가 당연한 결과인가? 솔직히 사랑하기 부담스럽고 거북한 사람들이 없는가? 그런데 요한은 형제 사랑은 결코 무거운 것(burden some)이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1.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이기는가?(4)
2. 이 이김을 힘주어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2:14, 19)
3. 우리의 이김은 누구를 힘입은 이김인가?(4:4, 5:5)
4. 그리스도인의 이김(승리)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자.
 - 1) 요16:33-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2) 계12:11-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 3) 롬8:37-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
 - 4) 고전15:57-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 5) 골2:15-십자가로 승리하심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 곧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또한 이 세상의 다른 싸움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사탄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탄(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 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의 이김으로 맛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 이다.

5.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6, 요19:34)
6.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셨음을 또 누가 증거 하는가(7-8)
7.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인가?(9-11; 마3:17; 마17:5)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라는 증거이다. 이 둘 뿐 아니라 성경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증거 하신다. 예수님의 물과 피를 눈으로 보지 못한 자라도 이 세 번째 더 강력한 증거로 인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믿는다. 물과 피가 사람의 증거라면 성경님은 하나님의 증거이시다.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의 물과 피를 본 적이 있는 그들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따라서 물과 피, 그리고 성경

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 되심을 증거 한다. 이 셋이 함하여 하나라는 말은 이 셋이 다 한 가지 사실, 즉 예수님의 사랑 되심을 증거 한다는 뜻이다.

8.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14-15, 요15:7)

9. 15절에 나타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 묵상해 보자.

10.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18)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17)

11. 우리가 아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19-20)

1)

2)

12. 요한일서의 마지막 한 마디가 왜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일까?(21)

함께 생각합시다

1.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다. 그 싸움에 계속 이기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하나님 아닌 것이 절대자의 자리에 서면 곧 우상이 된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며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가 다 됩시다.

1. NAC (The New American Commentary) Daniel L. Aki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Nashville, TN
2. BST(The Bible Speaks Today)

◆ 주님고대가 (손양원 목사님 작사)

1.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 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5.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 이광일 목사의 “사랑의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글로리아, 1995) 이광일 목사에 따르면 이 찬송은 전점용 전도사의 작품이라 한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신사참배를 하였고 손 목사님은 이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어 끝까지 승리하였다. 손 목사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당연한 일.